고삐 풀린 육체

(롬7:14~25)

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고삐 풀린 육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고삐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말의 아가리에 재갈을 물리고 재갈의 양 끝에 동그란 굴레를 달아서 그 굴레에 끈을 매는데, 그 끈을 고삐라고 합니다.
이 고삐를 통해서 말을 움직입니다.
말의 방향을 조정하고 말을 서게도 하고, 말의 운동을 제어하는 일을 고삐가 해줍니다.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 고삐에 적응되지 않은 상태의 망아지에서 어쩌다 고삐가 풀려버리거나, 아니면 고삐에 적응되지 않은 야생마에서 고삐가 풀려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이 말의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그 넘쳐흐르는 에너지가 분방한 욕구를 통해서 밖으로 뿜어져 나올 때 고삐가 없으면 도저히 감당해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야생마 위에 고삐 없이 올라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얼 잡고 어떻게 말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고삐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1977년 7월 13일에 25시간 동안 뉴욕에 정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전시간 동안에 뉴욕시에 있는 3천여 개의 점포가 약탈을 당하게 되고 4천 명에 달하는 약탈자들이 체포되면서 이 과정 중에 경찰이 200명이나 부상을 당합니다.
75곳에 방화가 일어나고 2천 건의 화재경보가 발생을 하면서 소방관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20억 달러의 재산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전으로 인한 암흑이 뉴욕시의 고삐를 풀어놔버린 것이에요.
이러한 소소한 고삐 풀림의 예를 들자면, 남자들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말투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전 양복 입고 회사에 나가서는 안 쓰던 상소리가 막 나와요.
또 남자들 외국에 출장가거나, 교수님 의사선생님들 외국에 세미나 때문에 가면 국내에서 하지 않았던 많은 짓들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삐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람이 말을 올라타듯이 육체를 올라탈 때에 그 육체 속에 엄청난 욕구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를 제어할 고삐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고삐 풀린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 하면, 십자가복음은 인간을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해주는 사건임과 동시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즉,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복음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단계가 있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섬기게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두 단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발견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얘기를 한번 풀어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이 나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요청이 내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위험한 듯 한 얘기에요,

그러나 일단 얘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 봅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심지어는 엄격하게 말해 국가의 법,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국가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 '지금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 행동할 뿐이지, 산헤드린 공회가 최고 의결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의결기관의 결정을 따르겠느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군대에 가라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기독교인 청년들도 군대를 가는 것이지, 군대법이 있기 때문에만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두 단계가 있는데, 그 두 단계 사이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제적인 상황을 오늘 사도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그 두 단계 사이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듯이 이야기함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된다는 마지막 점으로 가기 위해서 이 중간 단계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는 말이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읽은 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성령의 매인 바 되는 두 단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첫 번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내가 내 바깥에서 내게 제시되고 있는 어떤 법에도 따라 움직여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바람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율법을 따르지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 바람까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요.
오직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대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마음에 들어 하실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들이대고 있는 상태는 이제는 얘기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내 필요에 매여서 내 필요만 하나님께 들이대는 그런 기도로 일관되는 신앙생활은 논외로 해버립시다, 그건 신앙이 아니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바람은 있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을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바람을 갖고, 4절에 하나님에게 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 열매가 바로 행위에요, 행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 바람과는 달리,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세상의 법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내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면, 아 이거 웬일입니까? 내 마음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봐야지!' 하며 자발적인 바람을 갖고 있지만 이상하게 결과적인 행위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수가 없는 열매들이 자꾸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확인하게 되는 것은 13절 마지막에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성령에 매이기 전까지의 율법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 '나'라는 인간 자체, 사람들이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될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행위를 하고 싶은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 행위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얘깁니다.

이 이야기를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해줍니까?
도저히 성령님에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시는 행위를 해 나갈 수 없는 죄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하게 깨닫게 됨으로써 십자가를 붙잡는 강도와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십자가에서 약속된 성령 받음의 일이 반드시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하려고 사도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14절 한 절 말씀에 마지막 25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 안에 내가 행동했어야 되었던 행위의 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바탕이 되는 '탐심을 갖지 말라'
그러나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율법과 비교해봅니다.
율법에 적힌 문자가 나타내는 행위의 내용들은 내가 율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신령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를 보니 이건 신령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율법과 비교해볼 때.
율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비춰볼 때, 도저히 내 몸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것이 사도바울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하며 행동을 하는데, 일어나는 행위의 결과들을 보면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볼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기는커녕 징벌을 당장 내려마땅한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들로 자꾸 옮겨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행동을 해놓고 그걸 보니까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도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행동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는데, 그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내가 저질러 놓은

행위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얘기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는 16절까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마지막 시간 동안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행위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복음을 통하여 놓임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방되어서 우리 몸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도바울의 말에 의하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마음은 하늘에 앉힌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공중과 하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층의 구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해 계시는 하늘이 있고, 그 아래 공중이 있습니다, 그 공중에 우리 마음은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공중에 있고 그 아래에 육체가 속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공중에 있는 마음이 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붙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내 몸을 움직여 가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움직여 가실 때 나는 순종의 모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이시는 현장에 참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을 교통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육신에 속했다는 얘기는 하늘 아래에 있는 공중에 있는 마음이 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갔어야 되는데, 공중 아래 있는 이 땅의 세계의 육체로 와서 육체와 결합해버렸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빗나가서 지나쳐버리고 우리 마음이 몸에 붙어버렸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육신에 속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팔렸다는 얘기는 위쪽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몸으로 붙어버린 죄의 소유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죄의 소유가 되

었다는 얘깁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가 감사해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몸에 묶여있고 몸에 속해있고 그래서 죄의 소유가 되어있는 한 우리 몸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위가 나타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성령에 매인바 되기 전까지의 중간 단계에서의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의 예를 들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도대체 사도바울이 자기의 예를 들면서 악을 행한다고 얘기한 것이 어떤 악을 행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타당한 이야기인데, 사도바울도 악을 행했다는 게, 그래서 오죽 했으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에 묶여있는 내 마음을 누가 건져내겠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자고 온갖 얘기를 설교해도,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조차 그런 설교를 평생 듣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그 누구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입으로 설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약속된 성령의 임재가 없이 시장으로 나가고, 성령의 임재가 없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활하고 친구를 만날 때 이 성령의 임재함이 없는 삶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열매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8장에서 성령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이 암흑기와 같은 이 단계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성령에 매이기 전까지의 그 고삐 풀린 육체에 속해있는 우리의 마음상태를 사도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복음을 통하여 고삐 풀린 상태가 되었지만 성령의 매인바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육체에 매여 죄 속에서 구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 붙잡고 성령 임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